

(문제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

- ① 담배를 피다
- ② 날이 개이다
- ③ 고기를 재다
- ④ 차에 치다?

(문제 1)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

① 담배를 피다 (X) → 피우다

★ ‘피다’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담배)가 올 수 없다. 따라서 타동사 ‘피우다’를 쓴다.

◆ 피우다: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 < 아편을 피우다 / 담배 한 대 피울 시간조차 없다. / 철모를 벗어서 모래 위에 얹어 놓고 깔고 앉아 담배를 피웠다. > < 활용: 피우어, 피워, 피우니 >

☺**영보이 암기tip** 우산을 들고 담배를 피우다가 오박을 맞고 말았다. 그래도 내 머리는 깨지지 않았다. < 우산을 들고 - 담배를 피우다가 오박을 >

◆ 피다: 봄이 되었는지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 / 그 나무는 가지가 죽어 잎이 피지 않는다. / 숲이 피다 / 공기가 습해 연탄불이 잘 피지를 않는다. / 아이가 잘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피고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 / 소나기가 오려는지 먹구름이 검게 피었다. / 사업이 잘되어 형편이 피었다. / 스웨터에 보푸라기가 피다. / 식빵에 곰팡이가 피다.

② 날이 개이다 (X) → 개다

◆ 개다: 흐리거나 궂은 날씨가 맑아지다. < 날이 개다/비가 개다/날씨가 활짝 개다/아침부터 오던 눈이 개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

☺**영보이 암기tip** 길었던 장마가 지나고 날이 개다. 그 순간 도랑을 지나가던 것은 그야말로 내가 찾던 바로 그 개다. >

● 개다: 언짢거나 우울한 마음이 개운하고 활가분해지다.

● 기분이 개다 / 네가 그렇게 위로를 해 주니 내 마음이 좀 개는구나.

③ 고기를 재다 (O) = 재우다

◆ 재다: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두다. < 쇠고기를 양념에 재어 놓았다./인삼을 꿀에 잼다/김치를 담그려고 배추를 소금물에 재어 두었다. >

● 재우다: ‘재다’의 본말 < 쇠고기를 양념에 재우다/잔칫날 하루 전에 돼지고기를 얹게 썰어 재워 두었다./꿀에 오랫동안 재워 둔 인삼을 아버지의 술상에 올렸다. >

④ 차에 치다? (X) → 치이다

◆ 치이다: ‘치다’의 피동사 < 트럭에 치이다 / 지나가던 차에 치인 아이들이 크게 다쳤다. >

☺**영보이 암기tip** 차에 치이고 이를 깨끗이 닦았다. < 차에 치이고 - 이를 깨끗이 >

◆ 치다: 차나 수레 따위가 사람을 강한 힘으로 부딪고 지나가다. < 트럭이 지나가는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제 차 운전수가 사람을 치었는데 불행히도 그 사람이 뇌진탕으로 사망했습니다. >

(문제 1) 정답: ③

(문제 2)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2)

- ① 반듯이, 수나비, 에두르다
- ② 쓱싹쓱싹, 명중률, 푸주간
- ③ 등교길, 늪름하다, 깡충깡충
- ④ 돋보이다, 거적떼기, 야단법석

(문제 2)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2)

① 반듯이, 수나비, 에두르다 (O)

◆ **반듯이**: (부사)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 < 원주 댁은 반듯이 몸을 누이고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다. > / 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하게. < cf. **반드시**: (부사) 틀림없이 꼭. ㄴ기필코·필위(必爲).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오너라./언행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

◆ **수나비**: 나비의 수컷. < cf. ‘숫’을 붙이는 동물: 숫양, 숫염소, 숫쥐 >

☺**영보이 암기tip** 수다를 떠는 수나비. 수제비나 먹고 잠이나 자라. < 수다 - 수나비 - 수제비 >

◆ **에두르다**: 에워싸 둘러싸다. /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하여 알아듣도록 둘러대다.

② 쓱싹쓱싹, 명중률, 푸주간 (X) → 푸**쫘**간

◆ **쓱싹쓱싹**: 툇질이나 줄질을 자꾸 할 때 나는 소리. / 밥 따위를 다른 재료와 비벼서 섞는 모양. < 쓱둑쓱둑: 어떤 물건을 도구나 기계 따위가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힘으로 자꾸 자르거나 베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삭둑삭둑’보다 센 느낌을 준다. >

☺**영보이 암기tip** 쓱싹쓱싹(ㅍㅍ) / 쓱둑쓱둑(ㅍㄷ), 삭둑삭둑(ㅅㄷ)

◆ **명중률**(命中率): 목표물에 명중하는 비율.

◆ [두음법칙 제11항] 모음이거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표기한다. 따라서 모음이거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므로 ‘ㄹ’로 표기한다.

☺**영보이 암기tip** 김동**률**은 언제나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명중**률**이 낮고 높은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느니라.” < 김동**률** - 명중**률** >

◆ **푸쫘간**: 예전에, 쇠고기나 돼지고기 따위의 고기를 끓여 팔던 가게. [푸주간/푸쫘간]

◆ [한글 맞춤법 제4장 제4절 제30항 사이시옷] 순 우리말(푸주)과 한자어(간(間))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간(ㄱ)]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푸주간 / 푸쫘간] >

◆ 푸쫘간 (O) = 고깃간 (O)

☺**영보이 암기tip** 영보이는 **쫘**대가 있어 저가의 고기를 파는 저 푸**쫘**간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 < **쫘**대가 있어 - 푸**쫘**간 >

③ 등교길, 늪름하다, 깡충깡충 (X) → 등**꼴**길[등교길 / 등꼴길]

◆ **등꼴길**: [한글 맞춤법 제4장 제4절 제30항 사이시옷] 순 우리말(길)과 한자어(등교(登校))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교(교)]으로 끝난 경우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길(ㄱ)]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늪름하다’는 [늪:늪하다]로 발음하지만 ‘**늪**름하다’로 표기한다.

- ◆ **깡충깡충**: (부사)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 ‘강중강중’보다 세고 거센 느낌을 준다.
- ☺**영보이 암기tip** **충렬왕**, **충렬왕**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 **충렬왕** - **깡충깡충** >
- ④ **돋보이다**, **거적때기**, **야단법석** (X) → **거적때기**
- ◆ **돋보이다**: ‘도두보이다’의 준말. / 무리 중에서 훌륭하거나 뛰어나 도드라져 보이다.
- ☺**영보이 암기tip** **돋보기**를 쓴 왕경태는 **돋보이**는 노래 솜씨를 보여주었다. < **돋보기** - **돋보이**는 노래 솜씨 >
- ◆ **거적때기**: 험 거적 조각. < 한글 맞춤법 제6장 제54항 - ‘-대기 / -때기’는 ‘때기’로 적는다. 거적때기 / 나무때기 / 등때기 / 배때기 / 송판때기 /-판때기(널~) / 팔때기 >
- ☺**영보이 암기tip** 진정한 **때밀이**는 **거적때기**라도 고객의 **때**를 아프지 않게 밀어야 한다. < 진정한 **때밀이** - **거적때기** >
- ◆ **야단법석**: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굴.
- ◆ **발음**은 [야단법석]이지만 **야단법석**으로 적는다.
- ☺**영보이 암기tip**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수석** 한 번 했다고 **야단법석**이다.
 < **수석** - **야단법석** > (문제 2) 정답: ①

(문제 3) 고유어에 대응되는 한자어를 잘못 제시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 3)

- ① 지름길 - 捷徑
 ② 비웃음 - 苦笑
 ③ 마름질 - 裁斷
 ④ 게으름 - 懈怠

(문제 3)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3)

① 지름길 - 捷徑

1)捷徑(첩경): 捷(빠를 첩/이길 첩, 꽃을 삽) 徑(지름길 경/길 경)

a)의미: 지름길.

◆ ‘捷徑(첩경)’은 ‘捷(빠를 첩) 徑(지름길 경)’을 쓰는데, ‘捷(빠를 첩)’에는 ‘扌(손 수)’가 들어가고 ‘徑(지름길 경)’에는 ‘彳(조금 걸을 척)’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조금 걸을지라도**(彳: 조금 걸을 척) **손**(扌: 손 수)을 저으며 힘차게 전진하면 결승점에 이르는 捷徑(첩경)이 될 수 있다.

② 비웃음 - 苦笑 (X) → 誹笑(비소), 嘲笑(조소)

1)誹笑(비소): 誹(헐뜯을 비) 笑(웃음 소)

a)의미: 비웃음

◆ ‘誹笑(비소)’는 ‘誹(헐뜯을 비) 笑(웃음 소)’를 쓰는데, ‘誹(헐뜯을 비)’에는 ‘言(말씀 언)’이 들어가고 ‘笑(웃음 소)’는 ‘竹(대나무 죽)’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대나무**(竹: 대나무 죽)로 담근 술이 몸에 좋다는 주정뱅이의 말(言:

말씀 언)에 모두가 誹笑(비소)를 머금었다.

***동음이의어**

1)非笑(비소): 非(아닐 비) 笑(웃음 소)

a)의미: 남을 비방(誹謗)하거나 비난(非難)하여 웃음. 또는 그런 미소.

◆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여 웃음’을 가리키는 ‘非笑(비소)’는 ‘非(아닐 비) 笑(웃음 소)’를 쓰는데, ‘非(아닐 비)’는 그 자체로 쓰고 ‘笑(웃음 소)’에는 ‘竹(대나무 죽)’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대나무로 종아리를 맞는 동생에게 위로(慰勞)는 못할망정 非笑(비소)하지는 마라. 아프잖아. 엉엉. 약 올리고 싶잖아. 엉엉. 도망치고 싶잖아. 엉엉.

③ 마름질 - 裁斷

1)裁斷(재단): 裁(마를 재) 斷(끊을 단)

a)의미: 마름질

◆ ‘마름질’을 가리키는 ‘裁斷(재단)’은 ‘裁(마를 재) 斷(끊을 단)’을 쓰는데, ‘裁(마를 재)’에는 ‘衣(옷 의)’가 들어가고 ‘斷(끊을 단)’에는 ‘斤(도끼 근)’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도끼(斤: 도끼 근)로 옷(衣: 옷 의)을 裁斷(재단)하는 산적들은 손이 거칠어 꼼꼼하지 못하다.

***동음이의어**

1)財團(재단): 財(재물 재) 團(둥글 단/경단 단)

a)의미: 어떤 사람의 사적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나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재산과 구별해서 다루는 것. 파산 재단, 재단 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단, 상속인 없는 상속 재산 따위이다. / 재단 법인(財團法人)의 준말.

◆ ‘재단 법인(財團法人)의 준말’은 ‘財(재물 재) 團(둥글 단/경단 단)’을 쓰는데, ‘財(재물 재)’에는 ‘貝(조개 패)’가 들어가고 ‘團(둥글 단)’에는 ‘口(에워쌀 위)’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넓은 마당을 에워쌀(口: 에워쌀 위) 정도로 재정이 넉넉한 장학 財團(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조개(貝: 조개 패)라도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④ 게으름 - 懈怠

1)懈怠(해태): 懈(게으를 해) 怠(게으를 태, 안락할 이). 발음: [해:태] (긴소리)

a)의미: 게으름. /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

◆ ‘懈怠(해태)’는 ‘懈(게으를 해) 怠(게으를 태)’를 쓰는데, ‘懈(게으를 해)’에는 ‘牛(소 우)’가 들어가고 ‘怠(게으를 태)’에는 ‘心(마음 심)’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부지런한 소(牛: 소 우)도 더운 여름에는 懈怠(해태)하고 싶은 마음(心: 마음 심)이 든다.

***유의어**

1)懈惰(해타): 懈(게으를 해) 惰(게으를 타). 발음: [해:타] (긴소리)

a)의미: 게으름.

◆ ‘懈惰(해타)’는 ‘惰(게으를 타)’를 쓰는데, ‘月(달 월)’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직장인들은 월요일(月: 달 월)이 되면 주말에 쉬었던 터라 懈惰(해타)하기 쉽다.

(문제 3) 정답: ㉔

(문제 4) ㉑~㉔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4)

굴동마을 지나 다산초당이 있는 다산을 오르자면 갑자기 청신한 바람이 답사객의 온몸을 휘감고 돈다. (㉠) 들어서 하늘이 감추어진 대밭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 자라 초당으로 오르는 길은 언제나 어둡고 서늘하다. 이것도 올봄에 갔더니 높은 데서 지시했는지 대밭도 솔밭도 시원스레 속아내서 (㉢) 흰해졌는데 그래도 (㉣) 울창했던 것인지를 청신한 공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

- | | ㉠ | ㉡ | ㉢ | ㉣ |
|-------|-----|-----|-----|---|
| ① 뻑뻑이 | 무성히 | 자못 | 워낙에 | |
| ② 촘촘히 | 뻑뻑이 | 워낙에 | 겨우 | |
| ③ 무성히 | 촘촘히 | 겨우 | 미처 | |
| ④ 뻑뻑이 | 무성히 | 미처 | 자못 | |

(문제 4)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4)

굴동마을 지나 다산초당이 있는 다산을 오르자면 갑자기 청신한 바람이 답사객의 온몸을 휘감고 돈다. (㉠뻑뻑이) 들어서 하늘이 감추어진 대밭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무성히) 자라 초당으로 오르는 길은 언제나 어둡고 서늘하다. 이것도 올봄에 갔더니 높은 데서 지시했는지 대밭도 솔밭도 시원스레 속아내서 (㉢자못) 흰해졌는데 그래도 (㉣워낙에) 울창했던 것인지를 청신한 공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

㉠뻑뻑이: (부사) 사이가 촘촘하게.

◆ ‘(㉠) 들어서 하늘이 감추어진 대밭과 아름드리 소나무’로 보아 뻑뻑이, 촘촘히, 무성히 모두 가능하다.

㉡무성히: 풀이나 나무 따위가 자라서 우거져 있는 상태로. / 털이나 뿌리 따위가 엉킬 정도로 마구 자라 있는 상태로. / 생각이나 말, 소문 따위가 마구 뒤섞이거나 퍼져서 많이.

◆ ‘대밭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 자라 초당으로 오르는 길은 언제나 어둡고 서늘하다.’로 보아 ‘무성히’와 ‘뻑뻑이’ 모두 가능하다.

㉢자못: 「부사」 생각보다 매우.

◆ ‘대밭도 솔밭도 시원스레 속아내서 (㉢자못) 흰해졌는데’로 보아 ‘자못’만이 가능하다.

◆ 워낙에: 두드러지게 아주 = 워낙

◆ 겨우: 어렵게 힘들여. / 기껏해야 고작.

◆ 미처: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워낙에: 두드러지게 아주 = 워낙

◆ ‘그래도 (㉣워낙에) 울창했던 것인지를 청신한 공기에는 변함이 없었다.’로 보아 ‘워낙에’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워낙에는 ‘과거’의 의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 워낙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단결이 쉽게 될까 모르겠소. / 워낙에 착하신 분이러 괴로운 것도 아프신 것도 잘 참으셨사와요. >

(문제 4) 정답: ①

(문제 5) 문장 부호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5)

- ① 의문문의 끝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쓰는 경우도 있다.
- ②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가운데뎡점을 쓴다.
- ③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쓴다.
- ④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각 물음의 뒤에 물음표를 쓴다.

(문제 5)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5)

- ① 의문문의 끝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쓰는 경우도 있다. (O)
 - ◆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 이 일을 도대체 어떤단 말이나. / 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라면 모를까. >
 - ◆ 물음의 말로써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 이게 누구야! / 내가 왜 나빠! >
- ②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가운데뎡점을 쓴다. (O)
 - 1)가운데뎡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 a)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 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서 2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다. /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
 - b)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
- ③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쓴다. (O)
 - 1)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슬픈 사연을 간직한’이 꾸미는 것은 경주 불국사가 아니라 ‘무영탑’이다.) <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성질 급한’이 꾸미는 것은 철수가 아니라 ‘누이동생’이다.)

④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각 물음의 뒤에 물음표를 쓴다. (X) →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쓴다. <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

- ◆ 하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
- ◆ 물음표: 문장 부호의 하나. ‘?’의 이름이다.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쓰거나,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을 표시할 때,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에 쓴다.

(문제 5) 정답: ④

(문제 6)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바와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6)

欲速則不達

- 論語 -

- ① 서 발 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다.
- ②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 ③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④ 뱀새가 황새를 따라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문제 6)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6)

1) 欲速則不達(욕속즉부달): 欲(하고자 할 욕) 速(빠를 속) 則(곧 즉) 不(아닐 부)
達(통달할 달)

a)의미: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

b)속담: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 論語 -

① 서 발 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다. - 서 발이나 되는 긴 막대를 휘둘러도 아무것도 거치거나 걸릴 것이 없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안이라 세간이 아무것도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헛한 빈 집에서 서 발 막대 거칠 것 없다.

< 가난과 관련된 한자 성어: 三旬九食(삼순구식: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 / 上漏下濕(상루하습: 위에서는 비가 새고 아래에서 습기가 오른다는 뜻으로, 매우 가난한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센 개 꼬리 시궁창에 삼 년 묻었다 보아도 센 개 꼬리다·오그라진 개 꼬리 대봉통에 삼 년 두어도 아니 퍼진다·흰 개 꼬리 굴뚝에 삼 년 두어도 흰 개 꼬리다.

③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O) -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꼭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cf. 찜: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 한 찜은 바늘 스물네 개를 이른다. >

④ 뱀새가 황새를 따라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말. ≒촉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문제 6) 정답: ③

(문제 7) 다음 글을 읽고 ㉠과 ㉡의 특징을 가장 잘 대조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7)

일반적으로 ㉠입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그리 많이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글말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새말이 생성되기도 하고 어떤 낱말은 사멸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글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

㉠ ㉡

- ① 生成性 死滅性
② 模糊性 明示性
③ 動態性 靜態性
④ 多彩性 規範性

(문제 7)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7)

◆ ‘일반적으로 ㉠입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그리 많이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글말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새말

이 생성되기도 하고 어떤 낱말은 사멸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글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로 보아 입말은 빠르게 변하고 글말은 서서히 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말은 동태성(動態性), 글말은 정태성(靜態性)이 가장 알맞은 정답이라 할 수 있다.

① 生成性 死滅性

◆ 성장(成長):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 사멸(死滅): 죽어 없어짐.

② 模糊性 明示性

◆ 모방(模倣):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 명시(明示):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

③ 動態性 靜態性 (O)

◆ 동태(動態): 움직이거나 변하는 모습

◆ 정태(靜態):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④ 多彩性 規範性

◆ 다채(多彩):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따위가 어울리어 호화스러움.

◆ 규범(規範):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문제 7) 정답: ③

(문제 8)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8)

“이빨을 준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지요.”라 말하리라. 다시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는 장차 무엇을 하게 하려 함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하늘이 먹이를 씹어 먹으라고 한 것이지요.”라 답하리라. 다시 “이빨로 먹이를 씹어 먹게 함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굽혀 땅에 닿도록 해서 먹이를 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의 다리가 이미 높으니 어쩔 수 없이 목을 길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도 흙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만들었더라면 트랙에서 굶어 죽었겠지요.”라 답하리라. 내가 크게 웃으며 “그대가 말한 하늘의 이치는 곧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한다.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가 반드시 구부려서 먹이를 씹게 하려 한 것일진대 이제 저 코끼리가 쓸데없는 어금니를 가지고 장차 땅에 구부려서 먹이를 씹는 데 도로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 말하면 어떤 사람은 “코에 의지하면 되지요.”라 말하리라. 내가 “어금니가 길어서 코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금니를 버리고 코를 짧게 하는 편이 나으리라.”라 하니 이에 떠들던 자가 처음 주장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바를 조금씩 굽혔다. 이는 생각의 범위가 미치는 것이 겨우 말, 소, 닭, 개 정도에 머물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해서이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쳐서 죽이니 그 코로 말한다면 천하에 적수가 없다 할 것이나,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돌 자리가 없어

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섰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말한다면 앞서 이른 하늘의 이치는 아닐 것이다. - 박지원, 상기(象記) -

- ① 코끼리는 쥐에게나 범에게나 천하무적의 대상이다.
- ② 사람들은 익숙한 대상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려 한다.
- ③ 코끼리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지탱하기 위하여 코가 길어졌다.
- ④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와 같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문제 8)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8)

- ① 코끼리는 쥐에게나 범에게나 천하무적의 대상이다. (X)

◆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쳐서 죽이니 그 코로 말한다면 천하에 적수가 없다 할 것이나,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둘 자리가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섰을 뿐이다.’로 보아 범에게는 천하무적이 될 수 있겠으나 쥐에게는 천하무적이라 말 할 수 없다.

- ② 사람들은 익숙한 대상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려 한다. (O)

◆ ‘ ~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지요.”라 말하리라. ~ 사람들은 “하늘이 먹이를 씹어 먹으라고 한 것이지요.”라 답하리라. ~ 사람들은 “이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 내가 크게 웃으며 “그대가 말한 하늘의 이치는 곧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한다. ~ 이는 생각의 범위가 미치는 것이 겨우 말, 소, 닭, 개 정도에 머물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해서이다. ~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말한다면 앞서 이른 하늘의 이치는 아닐 것이다.’로 보아 사람들은 익숙한 대상(소, 말, 닭, 개)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려 한다.

- ③ 코끼리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지탱하기 위하여 코가 길어졌다. (X)

◆ ‘코끼리가 쓸데없는 어금니를 가지고 장차 땅에 구부리려 한다면 어금니가 먼저 달을 터이니 이른바 먹이를 씹는 데 도로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 말하면 어떤 사람은 “코에 의지하면 되지요.”라 말하리라. 내가 “어금니가 길어서 코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금니를 버리고 코를 짧게 하는 편이 나으리라.”라 하니 이에 떠들던 자가 처음 주장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바를 조금씩 굽혔다. 이는 생각의 범위가 미치는 것이 겨우 말, 소, 닭, 개 정도에 머물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해서이다.’로 보아 코끼리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상이 아니어서 이는 생각의 범위가 코끼리에 까지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코끼리가 쓸데없는 어금니를 지탱하기 위하여 코가 길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고 있다.

- ④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와 같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X)

◆ ‘만약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만들었더라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겠지요.’라 답하리라.’로 보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이치는 닭의 다리와 학의 다리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글 어디를 찾아봐도 필자가 이렇게 주장한 부분은 없다. (문제 8) 정답: ②

(문제 9) 다음 개요에서 알 수 있는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9)

- I. 서론
 - 1. 재능 기부 현황과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 실태
 - 2.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
- II.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
 - 1. 홍보 부족
 - 2. 참여 의식 부족
 - 3. 프로그램 영역의 편중
 - 4.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채널 미비
- III.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
 - 1. 홍보 강화
 - 2. 국민의 공감대 형성
 - 3.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
 - 4. 연결망 구축
- IV. 결론

- ① 재능 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후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 ② 재능 기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능 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에 맞춘다.
- ③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④ 재능 기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이 초점이므로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토대로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을 이끌어 낸다.

(문제 9)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9)

- ① 재능 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후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X) → 재능 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이 부분은 글의 처음이 아닌 나중에 와야 한다. 또한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 ② 재능 기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능 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에 맞춘다. (X) → 논의의 초점은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이 아니라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에 맞춰야 한다.

③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O)

◆ 개요의 순서에도 알맞고 내용도 적절하게 기술하였다.

- I. 서론
 - 1. 재능 기부 현황과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 실태
 - 2.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

Ⅱ.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

1. 홍보 부족
2. 참여 의식 부족
3. 프로그램 영역의 편중
4.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채널 미비

Ⅲ.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

1. 홍보 강화
2. 국민의 공감대 형성
3.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
4. 연결망 구축

Ⅳ. 결론

④ 재능 기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이 초점이므로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토대로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을 이끌어 낸다. (X) →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토대로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문제 9) 정답: ③

(문제 1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0)

‘쓰나미’는 항구를 뜻하는 ‘쓰[津]’와 파도를 뜻하는 ‘나미[波]’로 이루어진 일본어 합성어이다. 쓰나미는 위협적인 파도를 동반해 일본의 항구 지역에 수시로 타격을 입히지만 신기하게도 같은 시간 먼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즉 쓰나미는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먼바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쓰나미를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날씨가 아주 평온하고 바다도 무척 잔잔했다고 말한다. 이는 쓰나미가 일반적인 태풍처럼 특정한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끈을 양쪽으로 묶은 다음, 한쪽 끝에서 수직 방향으로 갑작스러운 충격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위로 솟았다가 내려가는 연속적인 움직임이 끈을 타고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파동을 만드는 방법이다. 쓰나미의 원리도 바로 이 파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안에 나타나는 파도는 끈의 끝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같다. 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처럼, 바닷물도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쓰나미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마지막에 파도가 크게 부서지면서 바닷물이 땅으로 넘치고, 그중 일부는 원래의 바다로부터 떨어져 나와 물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 ① 쓰나미는 물 자체의 이동보다는 파동의 전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② 쓰나미는 태풍과 같이 특정 기상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 ③ 쓰나미는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며 확대되는 것이다.
- ④ 쓰나미는 일본어 합성어로, 가까운 바다보다 먼바다에서 더 위협적이다.

(문제 10)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0)

- ① 쓰나미는 물 자체의 이동보다는 파동의 전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O)
 ◆ '쓰나미의 원리도 바로 이 파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안에 나타나는 파도는 끈의 끝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같다.'로 보아 쓰나미는 파동의 전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쓰나미는 태풍과 같이 특정 기상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O)
 ◆ '심지어 쓰나미를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날씨가 아주 평온하고 바다도 무척 잔잔했다고 말한다. 이는 쓰나미가 일반적인 태풍처럼 특정한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로 보아 쓰나미는 태풍과 같이 특정 기상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 ③ 쓰나미는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며 확대되는 것이다. (O)
 ◆ '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처럼, 바닷물도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다.'로 보아 쓰나미는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며 확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쓰나미는 일본어 합성어로, 가까운 바다보다 먼바다에서 더 위협적이다. (X)
 ◆ '쓰나미는 위협적인 파도를 동반해 일본의 항구 지역에 수시로 타격을 입히지만 신기하게도 같은 시간 먼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즉 쓰나미는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먼바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로 보아 먼바다가 아니라 가까운 바다에서 위협적이다.

(문제 10) 정답: ④

(문제 11)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1)

- ① 노장은 결코 늡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② 노인들은 꽃나무를 잘들 키우신다.
 ③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
 ④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문제 11)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1)

- ① 노장은 결코 늡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동사)
 ◆ 늡다: 사람이나 동물, 식물 따위가 나이를 많이 먹다. 사람의 경우에는 흔히 중년이 지난 상태가 됨을 이른다. < '늡다'는 동사로만 쓰인다. 따라서 활용할 때 '-는'이 가능하여 '늡어, 늡으니, 늡고[늡꼬], 늡는[늡는], 늡지[늡찌]'로 쓴다. >
- ② 노인들은 꽃나무를 잘들 키우신다. (동사)
 ◆ 키우다: '크다'(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의 사동사. < cf. '크다'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
 ◆ 동사 '크다' - 키가 몰라보게 켰구나.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 착하고 바르게 커 주어서 고맙구나. / 한창 크는 분야라서 지

원자가 많다.

● 형용사 ‘크다’ - 키가 크다 / 눈이 크다 / 허리 치수가 커서 바지가 내려갈 것 같다. / 책임이 크다. / 크게 떠들다 / 실망이 크다 / 담이 크다 / 이번 일에는 그의 공이 컸다.

③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 (동사) < cf. ‘밝다’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

◆ 동사 ‘밝다’ - 벌써 새벽이 밝아 온다. / 이밤에야 어디를 가랴, 널 아침 밝는 대로 떠나겠노라 했다.

● 형용사 ‘밝다’ - 햇불이 밝게 타오르다 / 초저녁부터 달이 휘영청 밝았다. / 벽지가 밝아서 집 안이 아주 환해 보인다. / 사리가 밝다 / 인사성과 예의가 밝다. / 전망이 밝다 / 장래성이 밝다.

④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형용사)

◆ 많다(기본형):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 발음: [만:타](긴소리)
< ‘많다’는 ‘형용사’로만 쓰인다. 따라서 ‘많은’과 같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쓸 수 없고 ‘많은’만이 가능하다. / 활용: 많은[마:는], 많아[마:나], 많으니[마:느니], 많소[만:쑤] >

↓
∴ 형용사

★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붙일 수 있으면 동사, 붙일 수 없으면 형용사라는 것이다.

< cf. 전성 어미: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 명사 전성 어미, 관형사 전성 어미와 부사 전성 어미로 나뉘며, ‘-기’·‘-(으)ㄴ’·‘-ㄴ’·‘-ㄹ’·‘-아/어’·‘-게’·‘-지’·‘-고’ 따위가 있다. > (문제 11) 정답: ④

(문제 12) 높임법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2)

- ① 제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시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 ② 그분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니 각별히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 ③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물품이라 당장에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 ④ 아버님께서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여쭙어 보십니다.

(문제 12)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2)

① 제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시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O)

◆ 말씀은 높임말도 되고 낮춤말도 된다.

◆ 높임말 ‘말씀’: 할아버지,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 낮춤말 ‘말씀’: 할아버지, 제 말씀 좀 잘 들어주세요. 청춘사업이 심각합니다.ㅏㅏ

< cf. 곡해(曲解): 사실을 옳지 아니하게 해석함. / 남의 말이나 행동을 본뜻과는 달리 좋지 아니하게 이해함. >

② 그분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니 각별히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O)

◆ 그분: (대명사) ‘그 사람’을 아주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이용하여 주체 높임법 중 ‘간접높임’ ‘많으시니’를 적절하게 썼고 ‘주다’의 객체 높임법 ‘드리다’ 또한 올바르게 썼다.

◆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 ‘-시-’, ‘-옵-’ 따위와 같이 높임법에 관한 것과 ‘-았-’, ‘-는-’, ‘-더-’, ‘-겠-’ 따위와 같이 시상(時相)에 관한 것이 있다.

◆ 객체 높임법: 높임법의 하나.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 ‘-술 -, -습 -, -줄 -, -줍 -, -술 -, -습 -, -’을 붙여 표현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하여 ‘뵈다’, ‘드리다’, ‘여쭙다’를 써서 표현한다.

③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물품이라 당장에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O)

◆ 당신: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 아버지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신다. >

◆ 자기: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 / 그는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 한다. >

◆ 아끼시다: ‘당신’을 높이기 위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써 주체 높임법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④ 아버님께서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여쭙어 보십니다. (X)

→ 아버님께서서는 ~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or 아랫사람들은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버님께 여쭙어 보니다.

◆ 여쭙다: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린다.

◆ 아버님께서 아랫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므로 ‘여쭙다’가 아니라 ‘묻다’라고 해야 한다. / ‘여쭙다’는 객체 높임법이다. < cf. 주체: 아버님 / 객체: 아랫사람 >

◆ 객체 높임법: 높임법의 하나.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 ‘-술 -, -습 -, -줄 -, -줍 -, -술 -, -습 -, -’을 붙여 표현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하여 ‘뵈다’, ‘드리다’, ‘여쭙다’를 써서 표현한다.

◆ 묻다: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 < 활용: 물어, 물으니, 묻고[묻:꼬] >

(문제 12)정답: ④

(문제 13) 다음을 근거로 할 때, 평시조 종장의 율격에 맞지 않는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3)

4음절로 된 음보(音步)를 ‘평음보(平音步)’라 하고 3음절 (또는 그 이하)로 된 것을 ‘소음보’, 5음절 이상으로 된 것을 ‘과음보’라 하면, 평시조 종장의 율격은 ‘소음보 + 과음보 + 평음보 + 소음보’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묘타
- ②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 ③ 多情도 病人 냥혀여 줌 못 드러 흐노라
- ④ 님 向흔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라

(문제 13)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3)

◆ 음보(音譜): 시에 있어서 운율을 이루는 기본 단위. 영시에서는 하나의 강음절(強音節)을 중심으로 그것에 어울리는 약음절(弱音節)이 한 음보를 이루지만, 우리나라 시의 경우 대체로 휴지(休止)의 주기라고 할 수 있는 3음절이나 4음절이 한 음보를 이룬다. 예를 들면 4음보의 ‘오백 년/도읍지를/필마로/돌아드니’ 따위가 있다.

◆ 음절(音節):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 몇 개의 음소로 이루어지며,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이 되기도 한다. ‘아침’의 ‘아’와 ‘침’ 따위이다.

4음절로 된 음보(音步)를 ‘평음보(平音步)’라 하고 3음절 (또는 그 이하)로 된 것을 ‘소음보’, 5음절 이상으로 된 것을 ‘과음보’라 하면, 평시조 종장의 율격은 ‘소음보+과음보+소음보’로 설명할 수 있다.

◆ 4음절로 된 음보(音步)를 ‘평음보(平音步)’ - 4

◆ 3음절 (또는 그 이하)로 된 것을 ‘소음보’ - 소

◆ 5음절 이상으로 된 것을 ‘과음보’ - 5

● ‘소음보+과음보+평음보+소음보’ - **소 + 5 + 4 + 소**

①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X)

소(3) 4 소(3) 4 ≠ **소 + 5 + 4 + 소**

②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소(3) 5 4 소(3) = 소 + 5 + 4 + 소

③ 多情도 病人 냥혀 쯔 못 드러 흐노라

소(3) 5 4 소(3) = 소 + 5 + 4 + 소

④ 님 向흔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소(3) 과(6) 4 소(3) = 소 + 5 + 4 + 소

(문제 13) 정답: ①

(문제 14) 다음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책형 문14)

이랑이 소리를 높히 혀야 나를 불러 저긔 들밧츰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들밧 흥운을 헤앗고 큰 실오리 굿흔줄이 붉기 더욱 괴이혀며 괴운이 진흥 굿흔 것이 측측 나 손바닥 너비 굿흔것이 그믐밤의 보는 슷불빋 굿더라. 측측 나오더니 그 우흐로 적은 회오 리밤 굿흔것이 붉기 호박 구슬 굿고 뭉고 통낭헝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① ‘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②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다.

④ 혼철 표기가 발견된다.

(문제 14)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책형 문14)

이랑이 소리를 높히 혀야 나를 불러 저긔 들밧츰 보라 웨거늘 <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라' 고 외치거늘 >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빛 흥운을 헤얏고 큰 실오리 굵줄이 <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 밑 흥운(紅雲)을 헤치고 큰 실오리 같은 줄이 >

붉기 더욱 괴이하며 괴운이 진홍 굵한 것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眞紅)같은 것이>
 촌촌 나 손바닥 너비 굵한것이 그믐밤의 보는 숯불빛 굵더라. < 차차 나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숯불 빛 같더라. >

촌촌 나오더니 그 우흐로 적은 회오리밤 굵한것이 <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

붉기 호박 구슬 곱고 묶고 통낭 هنگ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 붉기가 호박 구슬 같고 맑고 속이 비치어 환하기는 호박보다 더 곱더라 / cf. 통랑(通郎): 속이 비치어 환함. >

◆ 동명일기(東溟日記): 조선 영조 48년(1772)에 의유당이 한글로 쓴 기행문.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일부분으로, 남편이 함흥 판관으로 부임할 때 따라가서 그곳의 명승고적을 돌아보면서 느낀 감회를 적은 것으로 남편에게 유람을 허락받을 때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으며, 특히 귀경대(龜景臺)의 일출과 월출 묘사가 매우 뛰어나다.

① '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O)

◆ 현대 국어 '의':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며,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나의 옷/그의 가방/영이의 얼굴/우리의 학교/사람의 자식/한강의 근원/어머니의 성경책 >

● 이 글에서의 '의': '그믐밤의'는 '그믐밤에'의 뜻으로 '에'는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다. < cf. 그믐: 음력으로 그달의 마지막 날(=그믐날) >

②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X) →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난다.

◆ 숯불빛: '숯불빛'의 '불'은 '블'이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이다.

◆ 원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 'ㄴ', 'ㄷ', 'ㄴ', 'ㄷ' 따위가 있다.

③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다. (O)

◆ '붉기 호박 구슬 곱고 묶고 통낭 هنگ기< 붉기가 호박 구슬 같고 맑고 환하기 >'로 보아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

④ 혼철 표기가 발견된다. (O)

◆ '이랑이 소리를 높히' 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라 웨거늘 ~ .'로 보아 혼철 표기가 발견된다.

◆ 혼철(混綴):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에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자음을 각각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표기법.

● 연철(連綴):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씀. 또는 그런 방법. '말쌈이'를 '말쌈미'로 쓰는 것 따위이다. (문제 14) 정답: ②

(문제 15) 다음 편지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5)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나서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제자들을 격려 하였고, 저처럼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다잡아 주셨지요. 선생님의 정성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쭙잖은 제가 그 은공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자주 ㉧연락드릴게요. 내내 평안하세요.

- ① ㉠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② 높임법을 고려하여 ㉡은 '선생님께서서는'으로, ㉢은 '고마우셨던지'로 바꾼다.
 ③ 의미를 고려하여 ㉢은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은 '되도록'으로 고친다.
 ④ ㉤과 ㉥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각각 '어쭙잖은'과 '연락드릴게요'로 철자를 수정한다.

(문제 15)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5)

① ㉠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X) → ㉡'있을지'는 '있다' + '-을지'가 결합된 말로 '을지'는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또한 시간과 관계된 말이 아니므로 붙여 쓴다. 그러나 시간과 관계된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있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 네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 >

◆ -을지: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 / 이 돈이 남을지 모자랄지는 써 보아야 안다. >

● -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 그를 만난V지도 꽤 오래되었다. / 집을 떠나온V지 어언 3년이 지났다. / 강아지가 집을 나간V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

② 높임법을 고려하여 ㉡은 '선생님께서서는'으로, ㉢은 '고마우셨던지'로 바꾼다. (X)

→ 고마웠던지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주체)를 낮춰야 하므로 '(저는) 선생님의 정성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③ 의미를 고려하여 ㉢은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은 '되도록'으로 고친다. (O)

◆ 마다하다: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다.

◆ '마다하다'를 쓰면 위 문장의 의미가 어색하므로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한다.

◆ ㉤'가능하다'는 형용사로 이 문장에서 부사(자주)나 동사(연락드리다)를 수식할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을 굳이 쓰려면 뒤에 명사 명사 '한'을 넣어 '가능한 한 자주 연락드릴게요.'로 해야 한다.

● 단어 자체를 바꾸려면 부사 '되도록'을 써서 부사 '자주'를 수식하면 옳은 문장이 된다. < 되도록 자주 연락드릴게요. >

④ ㉤과 ㉥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각각 '어쭙잖은'과 '연락드릴게요'로 철자를 수정한다.

(X) → 어쭙잖은

◆ 어쭙잖다: 비웃음을 살 만큼 언행이 분수에 넘치는 데가 있다. / 아주 서투르고 어설픈

프다. 또는 아주 시시하고 보잘것없다.

< cf. 어줍다: 말이나 행동이 익숙지 않아 서투르고 어설피다. / 몸의 일부가 자유롭지 못하여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 / 어쩔 줄을 몰라 겹연쩍거나 어색하다. >

◆ '연락드릴게요'는 [열락드릴게요]로 발음되지만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으)ㄴ까? / -(으)ㄴ꼬? / -(스)ㄴ니까? / -(으)ㄴ리까? / -(으)ㄴ쏘냐? >

(문제 15) 정답: ③

(문제 16) 다음 글과 논증 방식이 가장 가까운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6)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뽀틀을 넘으려면 도약대가 있어야 하듯, 낡은 사고, 인습,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고 따를 분명한 디딤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운동선수가 뽀틀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도전하려는 의지가 수반될 때에 뽀틀 너머의 새로운 사회를 만날 수 있다.

- ①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미국 여성은 미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미국 헌법은 미국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 ② 나는 유해한 모든 일을 피하려고 한다.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방출하는 대표적인 기기이다. 따라서 나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자제하려고 한다.
- ③ 전선을 통한 전기의 흐름은 도관을 통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지름이 큰 도관은 지름이 작은 도관에 비해 많은 양의 물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지름의 전선은 작은 지름의 전선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주말이면 동네에서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한다. 박물관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항상 전시되어 있으며, 대학로의 소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문화 공간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문화는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문제 16)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6)

◆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뽀틀을 넘으려면 도약대가 있어야 하듯, 낡은 사고, 인습,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고 따를 분명한 디딤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운동선수가 뽀틀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도전하려는 의지가 수반될 때에 뽀틀 너머의 새로운 사회를 만날 수 있다.'로 보아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유추(類推):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추리한다.

- ①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미국 여성은 미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미국 헌법은 미국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 연역법(演繹法)
(대전제) (소전제) (구체적 결론)

◆ 연역법(演繹法): 연역에 따른 추리의 방법.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추리 방법을 이른다.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상 필연적인 결론을 내게 하는 것으로, 삼단 논법이 그 대표적인 형식이다. 이를테면 ‘모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있다. 모든 지도자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도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있다.’ 하는 따위이다.

② 나는 유해한 모든 일을 피하려고 한다.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전제)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방출하는 대표적인 기기이다. 따라서 나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자제
(소전제) (구체적 결론)

하려고 한다. - 연역법(演繹法)

③ 전선을 통한 전기의 흐름은 도관을 통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지름이 큰 도관은 지름이 작은 도관에 비해 많은 양의 물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지름의 전선은 작은 지름의 전선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O) - 유추(類推)

④ 주말이면 동네에서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한다. 박물관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항상 전시되어 있으며, 대학로의 소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문화 공간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소전제

열리고 있다. 문화는 우리 생활 구성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 귀납법(歸納法)
(일반적 결론)

◆ 귀납법(歸納法):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서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구 방법. 특히 인과 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베이컨을 거쳐 밀에 의하여 자연 과학 연구 방법으로 정식화되었다. (문제 16) 정답: ③

(문제 17) 다음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7)

“말을 없앤다는 건 멋있는 일이야. 없애는 건 동의어뿐 아니지. 반의어도 있어. 예를 들어 ‘좋다(good)’라는 낱말을 생각해 보게.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구태여 ‘나쁘다(bad)’라는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ungood)’로 충분하지. ‘좋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훌륭하다(excellent)’느니 ‘멋있다(splendid)’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필요할까? ‘더 좋다(plusgood)’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 더 좋다(doubleplusgood)’로 하면 되지. 결국 신어사전(新語辭典) 최종판에는 ‘좋다(good)’ 하나만 남을 걸세. 멋있지 않나, 윈스턴? 물론 이건 애초에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야.”

- ① ‘신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이 나타나겠군.
- ② ‘좋다(good)’의 반의어는 ‘안 나쁘다(unbad)’로 표현되겠군.
- ③ 동의어와 반의어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군.
- ④ 빅브라더는 인간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고 싶어 했군.

(문제 17)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7)

① ‘신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이 나타나겠군. (O)

◆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 ‘안 좋다(ungood)’로 충분하지. ~ ‘더 좋다(plusgood)’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 더 좋다(doubleplusgood)’로 하면 되지. 결국 신어사전(新語辭典) 최종판에는 ‘좋다(good)’ 하나만 남을 걸세.’로 보아 ‘신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② ‘좋다(good)’의 반의어는 ‘안 나쁘다(unbad)’로 표현되겠군. (X) → 안 좋다

◆ ‘~ 없애는 건 동의어뿐 아니지. 반의어도 있어. 예를 들어 ‘좋다(good)’라는 낱말을 생각해 보게.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구태여 ‘나쁘다(bad)’라는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ungood)’로 충분하지. 결국 신어사전(新語辭典) 최종판에는 ‘좋다(good)’ 하나만 남을 걸세.’로 보아 ‘좋다(good)’의 반의어는 ‘안 나쁘다(unbad)’가 아니라 ‘**안 좋다**’로 표현될 것이다.

③ 동의어와 반의어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군. (O)

◆ ‘말을 없앤다는 건 멋진 일이야. 없애는 건 동의어뿐 아니지. 반의어도 있어. ~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구태여 ‘나쁘다(bad)’라는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ungood)’로 충분하지. ‘좋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훌륭하다(excellent)’느니 ‘멋있다(splendid)’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필요할까? ‘더 좋다(plusgood)’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 더 좋다(doubleplusgood)’로 하면 되지. 결국 신어사전(新語辭典) 최종판에는 ‘좋다(good)’ 하나만 남을 걸세.’로 보아 동의어와 반의어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④ 빅브라더는 인간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고 싶어 했군. (O)

◆ ‘원스턴? 물론 이건 애초에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야.’로 보아 빅브라더는 인간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고 싶어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 17) 정답: ②

(문제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 18)

時時로 멀이 드러 北辰을 바라보며

㉠傷時老淚를 天一方의 디이느다.

㉡吾東方文物이 漢唐宋에 디라마는

...(중략)...

吾王聖德이 欲并生히시니라.

㉢太平天下에 堯舜君民되야 이셔

日月光華는 朝復朝히얏거든

㉣戰船트던 우리 몸도 漁舟에 唱晚하고

秋月春風에 놓히 베고 누어 이셔

聖代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히노라.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① ㉠: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화자의 충정을 볼 수 있다.

② ㉡: 우리나라의 문물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볼 수 있다.

③ ㉢: 평안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화자의 바람을 볼 수 있다.

④ ㉔: 안빈낙도보다 부국강병을 희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다.

(문제 18)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8)

時時로 멀이 드러 北辰을 바라보며 <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진(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
 ㉑ 傷時老淚를 天一方의 디이는다. <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의 한 쪽 모퉁이에 떨어뜨린다, >
 ㉒ 吾東方文物이 漢唐宋에 디라마는 <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漢), 당(堂), 송(宋)나라에 뒤떨어지러마는 >
 ... (중략) ...
 吾王聖德이 欲并生 하시니라. < 우리나라 선조왕의 성덕과 함께 살고자 하시니라, >
 ㉓ 太平天下에 堯舜君民되야 이서 < 태평천하에 요순의 군민처럼 되어서 >
 日月光華는 朝復朝 하얏거든 < 해와 달의 빛에 아침마다 거듭되거든 >
 ㉔ 戰船트던 우리 몸도 漁舟에 唱晚 하고 < 전투선에 타던 우리 몸도 어주(고기잡이 배)에서 낚이저물도록 노래하고 >
 秋月春風에 눕히 베고 누어 이서 < 가을 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
 聖代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하노라. < 성군의 치하에 태평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 선상탄(船上嘆): 조선 선조 때에, 박인로가 지은 전쟁 가사(歌辭). 배 위에서 조국에 대한 충성 및 전쟁의 비애를 읊은 것으로, 임진왜란 때 통주사(統舟師)로 종군하여 부산에 있을 때에 지었다. 모두 144구이며 《노계집》에 실려 있다.

① ㉑: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화자의 충정을 볼 수 있다. (O)

◆ ㉑ 傷時老淚를 天一方의 디이는다. <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의 한 쪽 모퉁이에 떨어뜨린다, >

② ㉒: 우리나라의 문물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볼 수 있다. (O)

◆ ㉒ 吾東方文物이 漢唐宋에 디라마는 <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漢), 당(堂), 송(宋)나라에 뒤떨어지러마는 >

③ ㉓: 평안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화자의 바람을 볼 수 있다. (O)

◆ ㉓ 太平天下에 堯舜君民되야 이서 < 태평천하에 요순의 군민처럼 되어서 >

④ ㉔: 안빈낙도보다 부국강병을 희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다. (X)

◆ ㉔ 戰船트던 우리 몸도 漁舟에 唱晚 하고 < 전투선에 타던 우리 몸도 어주(고기잡이 배)에서 낚이저물도록 노래하고 > 로 보아 부국강병(富國強兵)보다는 안빈낙도(安貧樂道)를 희망한다고 할 수 있다.

◆ 부국강병(富國強兵):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함.

◆ 안빈낙도(安貧樂道):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문제 18) 정답: ④

(문제 19)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 19)

ㄱ. 커미션(commission)

ㄴ. 콘서트(concert)

ㄷ. 컨셉트(concept)

ㄹ. 에어컨(←air conditioner)

ㄱ. 리모콘(←remote control)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ㄱ

(문제 19)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19)

ㄱ. 커미션(commission) (O)

☺영보이 암기tip) 머리가 커질 대로 커져서 커미션만 많이 받으려 하네.

< 머리가 커질 대로 커져서 - 커미션만 많이 >

ㄴ. 콘서트(concert) (O)

☺영보이 암기tip) 콘서트에 가서 월드콘을 먹자. 네가 사라. 먹지 말자.

< 콘서트에 가서 - 월드콘 먹자 >

ㄹ. 에어컨(←air conditioner) (O)

☺영보이 암기tip)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었더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

< 에어컨 - 컨디션 >

ㄷ. 컨셉트(concept) (X) → 콘셉트

☺영보이 암기tip) 이번 신(scene)은 코를 훌쩍거리는 것이 콘셉트야. 훌쩍훌쩍 ~ . 야, 코는 흘리지 마. < 코가 - 콘셉트 / 코 - 콘 >

ㄱ. 리모콘(←remote control) (X) → 리모컨

☺영보이 암기tip) 에어컨 옆에 리모컨을 놓아 두어라. 잃어버리지 않게.

< 에어컨 - 리모컨 >

(문제 19) 정답: ②

(문제 20)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 20)

(가) 농업박물관 앞뜰에는 가을이 한창입니다

어린 아들에게 고개 숙인 벼의 한살이를

일러주던 한 아버지는 그 허수아비가

지키는 참새떼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습시다

그 허수아비가 왜 진짜 허수아비인지도

말해주지 않았지요.

- 이문재, 농업박물관 소식 -

(나) 바닥에 바짝 엷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 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 문태준, 가재미 -

(다) 싸리재 너머

비행운 뗏다

붉은 밭고랑에서 허리를 펴며

호미 든 손으로 차양을 만들며

남양덕

소리치겠다

“저기 우리 진평이 간다”

우리나라 비행기는 전부

진평이가 몬다

- 윤제림, 공군소령 김진평 -

(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지만

아프리카 한복판 가뭄에 굶어 죽은

수십 만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갈대였을까

갈대같이 말라서 쓰러져 죽고 마는

아무 생각 못 하는 개미떼들이었을까

그 갈대를 꺾어서 응접실을 치장하고

생각하는 갈대답게 아프리카를 본다

- 마종기, 아프리카의 갈대 -

- ① (가)는 화자가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② (나)는 ‘가재미’에게 질문을 건네면서 화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③ (다)는 ‘비행기’를 소재로 ‘남양덕’과 대화를 주고받는 화자의 욕망이 그려져 있다.
- ④ (라)는 ‘개미떼’로 비유될 수도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이 그려져 있다.

(문제 20)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7급 마책형 문20)

① (가)는 화자가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X) ◆ ‘ ~ 어린 아들에게 고개 숙인 벽의 한 살이를 / 일러주던 한 아버지는 그 허수아비가 / 지키는 참새떼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습시다 / 그 허수아비가 왜 진짜 허수아비인지도 / 말해주지 않았지요.’로 보아 화자가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사실은 알 수 없다. 또한 스스로 답을 찾아 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지도 않다.

② (나)는 ‘가재미’에게 질문을 건네면서 화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X) → ◆ ‘ ~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로 보아 ‘가재미’에게 질문을 건넨 곳은 찾을 수 없다.

③ (다)는 ‘비행기’를 소재로 ‘남양덕’과 대화를 주고받는 화자의 욕망이 그려져 있다. (X) → ◆ ‘싸리재 너머 / 비행운 뗏다/ 붉은 밭고랑에서 허리를 펴며 / 호미 든 손으로 차양

을 만들며 / 남양택 / 소리치겠다 “저기 우리 진평이 간다” / 우리나라 비행기는 전부 / 진평이가 몬다’로 보아 비행기를 소재로 했으나 남양택’과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은 찾을 수 없다.

④ (라)는 ‘개미떼’로 비유될 수도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이 그려져 있다.
(O) ◆ ‘ 아프리카 한복판 가뭄에 굶어 죽은 / 수십만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 무슨 생각을 하는 갈대였을까 / 갈대같이 말라서 쓰러져 죽고 마는 / 아무 생각 못 하는 개미떼들이었을까 / 그 갈대를 꺾어서 응접실을 치장하고 / 생각하는 갈대답게 아프리카를 본다’로 보아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개미떼로 비유하여 인간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이 그려져 있다.

(문제 20) 정답: ④

◆ 해설 관련 문의 & 기타 문의: <http://blog.naver.com/youngboy0710>